

개성~파주 마라톤 대회 남북 협의 '제자리걸음'

김정은 위원장 방남 성사시 진전 기대

경기도가 남북 체육분야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개성~파주 평화통일 마라톤대회'가 아무런 진척 없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1일 경기도와 파주시에 따르면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11월 경기 고양시에서 개최된 아태평화국제대회 마지막 날 언론 브리핑에서 남북 체육교류로 국제프로복싱대회 단일팀 참가, 개성~파주 평화통일 마라톤대회 등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평화부지사는 앞선 지난 10월 평양에서 열린 10.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가진 남북 성과 브리핑에서도 체육, 문화, 관광 등 상호협력사업에 대한 순차적 진행에 합의했다며 위와 같은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은 방북에 이어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방남단과 일정을 함께 한 뒤 발표된 것이어서 상당한 공신

력을 갖춘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반인 마라톤 러너들의 첫 방북이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육로로 남과 북을 이어달리는 첫 마라톤대회의 성사 여부에 큰 기대가 모아졌다.

여기에 얼마 뒤 파주시도 4.17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해 내년 4월 17일 개성~파주 평화통일 마라톤 대회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남북 육로를 달리는 마라톤대회 개최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확인 결과 지난 아태평화국제대회 이후 경기도와 북한 간 관련 협의는 전혀 없는 상태로 파주 남북 성과 브리핑에서도 체육, 문화, 관광 등 상호협력사업에 대한 순차적 진행에 합의했다며 위와 같은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은 방북에 이어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방남단과 일정을 함께 한 뒤 발표된 것이어서 상당한 공신

없었다. 파주시는 내년 4월 개최를 목표로 했던 4.17 평화통일 마라톤 대회 개최는 대회 준비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때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추후 경기도가 나서서 개최할 경우 공동 주최로 참여해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주시 측은 "최근 개성~파주 마라톤대회 개최에 대한 마라톤 관련 협회의 제안이 있었지만, 내년 4월 개최는 준비기간 등 일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관련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경기도가 개최하면 공동 개최로 참여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북한과의 협의나 접촉이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아태평화국제대회 이후에는 협의할 적이 없다"며 "남북 협력사업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이 성사된다면 급격히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스



해외대마합법화 이후 국내 밀반입 대폭 증가

11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 대마술, 대마초콜릿, 대마오일 등 북미지역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대마류가 놓여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금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캐나다 전역에 대마합법화가 시행되면서 11월 대마류 단속실적은 총 182건, 27kg, 5억7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건수, 총량, 금액 면에서 모두 크게 증가한 수치다.

서대문구 KT화재 피해 소상공인 위로금 신청 받는다

오늘부터 26일까지 14개 동 주민센터에 직원 상주

서울 서대문구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KT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KT는 지난 10일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안으로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과 영세 소상공인 서비

스 장애사실을 접수받아 이를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한다.

구는 12일부터 26일까지 14개 동 주민센터에 KT 직원을 상주시켜 서비스 장애사실을 접수받는다. 마포구·은평구·용산구·중구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구를 포함한 서비스 장애지역에

서 KT 유선전화와 인터넷 가입자 중 주문전화나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개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고 인근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사실을 신청하면 된다. KT는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와 지급규모는 개별적으로 알린다.

뉴스스

서울시내 화재로 5년간 171명 사망

소방재난본부, 사망 171명 중 주거시설 120명(70.2%)



1171명이다. 재산피해는 853억 원이다. 연평균 170여 억원씩 피해를 입은 셈이다.

전체 화재 2만9803건 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만983건으로 40.2%를 차지했다.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737명(사망 120명, 부상 617명)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절반을 넘었다.

주거시설 사망자 120명 중 단독주택 사망자는 67명(39.2%), 공동주택 사망자는 47명(27.5%)이다. 단독주택 화재 유형별로는 다가구가 2691건(54.5%)으로 가장 많

다. 이어 단독 1655건(33.5%), 상가주택 381건(7.7%), 다중주택 153건(3.1%), 기타주택 55건(1.1%) 순이다.

공동주택 화재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355건(48.8%)로 가장 많다. 이어 다세대 2382건(34.5%), 연립 668건(9.6%), 주상복합 291건(4.2%), 기숙사 10건, 기타 191건 순이다.

시는 "주택은 화재시 내부벽면을 따라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된다. 벽면을 따라 불길이 번진 상태에서는 초기진화보다는 파난에 우선해야 한다"며 "화재 발생 시에는 연기배출을 위한 창문 또는 출입문을 개방하는 행위는 산소공급으로 급격한 연소 확대를 초래해 위층 등 주변 거주자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따라서 화재피난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전기장판 등 전열기기 사용실태 점검, 위기상황판단능력 향상을 위한 집중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홀몸 노인 등 화재피난 약자에 대한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전기장판 등 전열기기 사용실태 점검, 위기상황판단능력 향상을 위한 집중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최근 5년간 숨진 인원이 17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11일 발표한 화재 피해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화재는 2만9803건이다. 연평균 5960여건 발생한 셈이다.

5년간 화재피해 사상자는 1342명이다. 사망자는 171명, 부상자는

서울 자동차세 납부 외국인 2만명 넘어

서울시, 자동차세 고지서 외국인 안내문 동봉 우편 발송

서울시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이 2만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 외국인 안내문을 동봉해 우편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은 2만982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차량 대수는 2만886대다.

이들 외국인에게는 중국어, 영어, 몽골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송달됐다.

중국어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1만4097명(1만4702대)으로 가장 많다. 이어 영어(6307명, 6630대), 몽골어(324명, 347대), 일본어(100명, 100대), 독일어(56명, 57대), 프랑스어(48명, 50대) 순이다.

시는 외국인 차량을 비롯해 시에 등록된 차량 142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10일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85억원(142만대)

규모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시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활용하면 된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해도 된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스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